큰스님 수행한담

옳은일 실천하는 것"

◇65년 법주사 성지순례에서 신도들과 함께 기념촬영

부처님 가르침 담긴 책 읽으면 선근종자 심는 기회가 돼요 45년간 불서보시한 까닭입니다

람이 거의 없어요. 말로는 지키겠다고 하지만 물질에 끌려다니고, 말초적인 향락에 쉽게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마하승기율〉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계는 위대한 뱃사공으로서 능히 생사의 바다를 건네준다. 계는 시원한 연못과 같아서 온갖 번뇌를 씻어낸다. 계는 두려움을 없애는 방편이니 그릇된 마음에서 생기는 재앙을 제거한다. 계는 최고의 반려이니 험악한 길을 통과하게 한다. 그러므로 계는 감로의 문이고 성자들의 처소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도 그 괴로움을 잊고 도리어 즐겁게 합니다. 둘이 아니라는 말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처럼 세상을 보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범위가 커져서 일체 중생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일,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내 육신을 끊어놓더라도 대항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생에 네가 지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이니 달게 받으라는 뜻입니다. 달게 받으라는 것이 불법이예요. 인과법을 아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이 어디 묘하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미가 절에 가서 "제가 중노릇 잘 하겠습니까?" 하고 묻자, 한 노스님이 "한 10년 해 봐라"고 말했지요. 10년이 되는 날 이 사미가 하직인사를 올렸어요. "공부도 되진 않고, 아무 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니 집에 가야겠습니다." "집에 가서 왜 왔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텐가? 불교가 뭔지는 알고 가야 할 것 아닌가?"

사미가 다시 물었어요. "불교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불교다."

"아니,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얘기를 하십니까?"

"백살 먹은 노인네라도 착한 일을 하기 쉽지 않네."

이 말 한마디에 사미승이 깨달았어요.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게 불교지, 절에 열심히 다녔다고, 또 큰스님들 찾아다니며 법문 많이 들었다고 불교하는 것 아닙니다. 옛날에 나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도 "저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 것을 가져가는구나"고 할 수 있어야 해요. 나를 나무래야지, 남을 원망하거나 대응하면 업만 쌓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배고픔도 몰라야지, 배고픔을 알면 즐거움이 아닙니다. 80이 다 되도록 불교를 해보니,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냐, 출출하고 시장할 때예요.

45년간 불서 수백만권을 대한민국의 사찰마다 보내지 않은 곳이 없어요. 외국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불자라면 한번쯤은 보았을 겁니다. 불서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가르침이 들어있는 소중한 책이지요. 그러나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안됩니다. 소장하고만 있다고 해서 복이 들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예요.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불교는 깨달으라는 가르침이고,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은 다 깨닫기 위한 방편입니다. 콕짓고 기도한다고 해서 박힌 가시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에도 책을 인쇄하고 보내는데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돈을 장만해놓고 법보시하는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돈이 떨어지면 법보시하겠다는 분이 꼭 나와요. "책에 쓰인 통장번호로 돈을 넣었으니 보태세요" 하는 전갈이 오는 겁니다. 부처님 일은 마음 깨끗이 먹고 하면 된다는 것을 나는 매번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보시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내가 보낸 책을 누구라도 읽고 그 마음속에 선근종자를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책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시는 부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고, 부처님과 대화하게 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사람이라도 깨우침의 길로 이끄는 것이 불교니 절을 관둘 아까울 것이 없지요.

"모든 선과 공덕 보시로부터 시작돼요"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듯 세상 보세요"

바닷물이 짜다는 것은 그 물을 떠서 맛보는 사람이 알수 있는 거지 듣기만 해서는 모르듯 불교도 자기가 맛을 봐야지 듣기만 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백가지를 아는데 50개를 실천하면 50점이예요. 10가지를 알더라도 8개를 행하면 80점입니다. 많이 알려고만 하면 그만큼 실천이 더뎌집니다. 많이 안다고 불교 잘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적게 알더라도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쿠시나가라에 계실 때입니다. 하늘에서 예쁜 꽃과 훌륭한 과일 공양을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꽃과 과일들이 천신에 의해서 나에게 바쳐졌다. 그러나 나에게 올리는 참다운 공양은 이것이 아니다."

아란존자가 여쭈었지요. "그러면 부처님께 올리는 참다운 공양이란 무엇입니까?" "불법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불법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공양물만 덮어놓고 많이 마련하는 것이 참다운 공양은 아니다."

법회를 잘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극락세계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현실의 불국토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근본정신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실천하느냐, 보시하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자비심을 일으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보시입니다.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쳐주고, 죽게 된 중생을 살려주고, 공포심 가진 중생에게 의지할 곳을 일러주며, 약한 중생에게 힘을 주고, 가난한 중생에게 재물을 주며, 무식하고 무능한 중생에게 지혜와 기술을 가르쳐주고, 병든 중생에게는 약을 주며, 갈 곳이 없는 중생에게는 거처를 주고 보살펴 주는 것들이 모두 다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더라도 상이 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베풀어도 베푼데 대한 집착이 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오히려 즐겁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날이 갈수록 물욕과 향락에 집착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 보시정신을 가르쳐주고 실천하게 하는 일 또한 불자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보시는 모든 부처님이 처음 수행하실 때부터 부처가 될 때까지 세우신 원력이며, 실천하셨던 행입니다. 모든 선과 모든 공덕은 보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참다운 행복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는 데서 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 모두입니다. 베풂과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불자의 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 수행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참선 염불 간경 주문 기도입니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알맞는 방법을 택하여 공부하되, 반드시 육바라밀을 닦아야 합니다.

정리=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장 영 동
〈울산다도교육원장〉

'한눈 팔지말고 천지를 관통시켜라' 불법인연 20년동안 매일 새벽 참선

나는 항상 새벽에 눈을 뜨자 마자 빠져 나가려는 화두를 물고 정좌를 한다. 우물쭈물할 여지 없이 밀릴 만큼 밀려 나버린 난간에서 붙잡고 가야할 자리는 바로 자신이다. 염치 불구하고 재촉을 한다.

"이제는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그 누구의 흉내도 내지 말라." "오직 당신의 문제는 당신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수차례 방망이질하며 하루를 대기시켜 놓는다. 차 솥을 바로 놓고 찻종을 곱게 닦으며 "한잔의 차로써 영혼을 맑게 하시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옵시고 영영세세토록 생사열반을 훨훨 벗어나 천지도리 하나되어 터득 아닌 터득으로 대 자유인을 만드소서" 라고 자신을 돌이켜 본다. 나에게는 정혜(定慧)로 가려는 지계(指戒)의 실천이다.

그리고는 공부방에서 편안한 자세로 자신과의 씨름을 시작한다. "오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 당신은 한 눈 팔지 말고 천지를 관통시켜라. 그래야 당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되어 내가 알지 못하는 부귀영화를 왜 누리고 사는지 아니면 나에게만 이 억울한 세상이 왜 찾아오는지를 알 것이 아닌가. 묵은 업장의 과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그 누구의 충고도 필요 없다. 그 길이 쉽든 험하든 외통수다. 마음이고 부처고 조사고 다 군더더기다. 자신을 관통하고 봐라. 당신의 할 일은 오직 하나 천지관통이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빚지지 않고 당신의 값을 치를 수 있다. 부모에게의 불효도 자식에게의 못남도 부부간의 섭섭함도 한 방에 갚을 수 있다.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공부하소 하고 안하고는 당신 사정이오. 금생에서 끝장보고 안보고도 당신 사정이오.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

이것은 불교와 인연을 맺고 하루도 빠짐없이 해 온 나의 일과며 수행생활이다. 지고한 불법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고 이같은 수행생활을 시작한 것은 20여년전. 당시 친구의 소개로 구도회에 가입, 〈법성게〉등 경전공부를 하면서 사찰답사를 통해 신심증장과 불교문화에 대한 눈을 떴다. 그리고 다도를 공부한 나만의 특성을 살려 나름대로의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KBS 울산방송국에서 첫 법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울산다도교육원을 설립, 매주 사찰의 불교교양대학과 신행단체에서 다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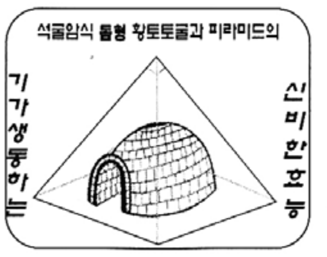
이왕지사 비빈 언덕이라 아무래도 이곳이 좀 수월치 아니할까 하고 위안을 하며 지금까지 하고 있다. 마조 어록의 경책에 공감을 느낀다. "내 전생이 즉심즉불(卽心卽佛)이라 했던 비심비불(非心非佛)이라 했던 이젠 난 내 길을 간다" 하고 말 엉덩이를 쳤던 것에 이젠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인연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잘 잘못을 살펴본다. 사랑하던 사람과는 사랑의 방법을 모르고 만났으니 억울하게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모짓을 할 때 얻은 지식들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부부가 뭔지 모르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집사람에게 죄스럽고, 공부가 뭔지 모르고 훈장 짓을 했으니 아이들이 바로 배우기나 했겠으며 우정이 뭔지 모르고 친구들을 사귀었으니 그 친구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며, 내 자신 하나 똑 바로 세우지 못한 주제에 벽돌이 되어 남의 집 담벼락이 되었으니 그 집이 온전했겠나. 이 모든 큰 죄를 누구에게 빌고 갚을 수 있을까.

그 누구에게도 이 큰 프로젝트를 맡길 수 없음을 나는 이제 알았다. 당신이 배고프고 똥 마려울 때 누구에게 맡기어 해결해야 하는가. 나는 오늘도 차 한잔을 입에 물고 관세음보살을 만번 부르며 자성불에게 경책을 가한다.

황토 집(토굴)

나무 장작과 구들방, 그리고 황토 외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과 일체가 되는 살아 숨쉬는
황토 집을 짓겠습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낌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집(토굴)

- 자연식품+한약재 배합
- 황토 미장 특허
- 돔형 토굴체험 황토 벽돌 공장 견학
- 황토 사랑 모임회 월 1회 개최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 017)566-9969

滴天髓闡微
적 천 수 천 미
上下 (卷)완결판 芮光海 譯

명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바른 길이 있으며 바르게 배우고 익힘으로써 올바르게 行할 수 있으니 흥미로움에만 관심을 두어 뭇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출처(出處)도 근원(根源)도 알 수 없는 허황된 말들만을 나열한 그릇된 冊과 이러한 글을 배우고 익혀 잘못된 논리에 젖어든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는 안될 것이다.

-筆者의 辯에서-

명리서의 백미
命學之書의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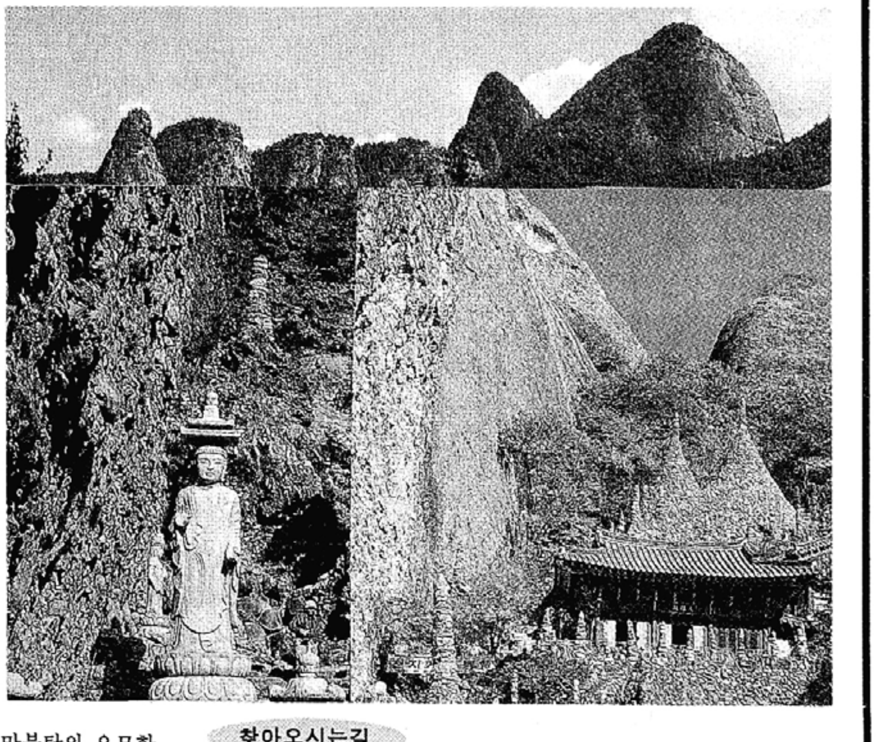
上·下각권 20,000원

통신판매 예금주 서 찬 배
• 조흥은행 436-04-054683 • 국민은행 833-24-0147-067
• 서울은행 39807-0602412 • 축 협 047-11-12095-316

도서출판 指南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6-4(3층)
TEL. (02) 387-8429, 2264-5139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